



인천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수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제 목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1. 의회사무국-35(2025. 1. 2.)호 및 9603(2025. 11. 3.)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연구단체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끝.

인천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담당자

김보아

전문위원 강석우

대표위원

김희연

시행 인천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 제4호(2025. 11. 26.)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http://seo.incheon.kr

전화 032-560-5862 / 전송 032-560-2797 /

/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대표자	김미연 의원
연구주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유
연구방법	문헌 연구, 우수사례 비교시찰, 간담회, 정책포럼 등
연구내용 요약	생애주기별·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예술 치유 방안 도출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2025년 11월 26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김미연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귀하

등록번호	의회사무국-9981
등록일자	2025. 11. 13.
결재일자	2025. 11. 24.
공개구분	비공개(목록공개)

주무관	전문위원	대표의원	결재
김도아	강현숙	김이연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I 의원연구단체 현황

- 연구단체명: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 활동기간: 연구단체 승인일 ~ 2025. 11. 21.(금)
- 구성인원: 총 4명

연 번	구 분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고
1	대표의원	김미연	기획행정위원회	
2	소속의원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3	소속의원	한승일	기획행정위원회	
4	소속의원	심우창	복지도시위원회	

- 자문위원: 총 8명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오제열	- 경기문화관광축제 평가위원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총감독	
2	오효석	- 인천서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장	
3	우사라	- 인천부평구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4	유 미	- 추계예술대학원 예술치유 교수	
5	이성미	- 서구문화예술인회 총회장 - 가을갤러리 관장	
6	이은영	- 인천서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7	조운희	- 인천광역시 행정동우회 이사 - 전)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	
8	홍현주	-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 - 인천소극장오페라페스티벌 위원장	

II

연구개요

연구주제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 및 치유를 위한 정책 연구
- 사회적 고립 인구 등의 예술치유를 위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발굴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우울증,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문제 해결
- 서구 특색을 갖춘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치유프로그램 개발
- 지역주민 활력 부여 및 연대감 증진 등 서구 주민 회복력 강화
- 예술을 통한 사회적 치유와 선도사례 기준 마련

연구내용

- 사회적 고립과 예술치유의 이론적 고찰 및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와 사례, 국내외 사회적 예술치유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인천광역시 서구의 사회적 고립 현황 조사 및 문화예술교육 치유 프로그램 연구, 관련 정책 및 조례 분석
-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 우수사례 연구를 통한 서구 특화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Ⅲ

세부 연구활동

□ 제1차 정기회의

- 일 시: 2025. 3. 28.(금) 11:00~12:00
- 장 소: 의원간담회장
- 참석인원: 총 4명
-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 방향성 등 연간 세부활동계획 논의
 - 정책연구용역 주제 및 세부연구내용 논의

□ 자문위원 위촉

- 일 시: 2025. 3. 28.(금) 12:00~13:30
- 장 소: 의원간담회장 및 관내 음식점
- 참석인원: 총 10명
- 주요내용
 - 자문위원 위촉 및 추가 대상자 검토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오제열	- 경기문화관광축제 평가위원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총감독	
2	오효석	- 인천서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장	
3	우사라	- 인천부평구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4	이성미	- 서구문화예술인회 총회장 - 가울갤러리 관장	
5	이은영	- 인천서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6	조운희	- 인천광역시 행정동우회 이사 - 전)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	
7	홍현주	-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 - 인천소극장오페라페스티벌 위원장	

- 국내 우수사례 비교시찰 일정 및 장소 검토

□ 자문위원 추가 위촉

- 일 시: 2025. 4. 7.(월) 10:00~11:00
- 장 소: 의원실
- 참석인원: 총 2명
- 주요내용

- 예술치유 관련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 추가 위촉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유 미	- 추계예술대학원 예술치유 교수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우수사례 비교시찰

- 일 시: 2025. 4. 15.(화) 9:30~14:00
- 장 소: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 참석인원: 총 12명(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직원 2명 포함)
- 주요내용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의 주요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 검토
 -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 실행 사례 분석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의 공간 활용 방안 시찰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정서적 변화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질의
 - 지역주민 간 소통 창구로써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질의
 - 서구 유사 프로그램 비교 및 정책 적용 가능성 토론

□ 성남문화재단 우수사례 비교시찰

- 일 시: 2025. 6. 24.(화) 08:40~17:00
- 장 소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86)
 - 성남아트센터(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참석인원: 총 17명(꿈꾸는예술터 직원 3명, 성남아트센터 직원 6명 포함)

○ 주요내용

- 꿈꾸는예술터 견학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장 시찰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사례 청취, 아이디어 습득
- 지역 문화예술인, 기관, 입주자대표회의 등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방안 질의
- 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 도출의 필요성 및 프로그램 발전 방향 논의
- 지역 문화예술인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동기부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 필요성 논의

□ 정책연구용역 의뢰 및 계약

- 용역명: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치유를 위한 기초단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 계약일: 2025. 6. 27.(목)
- 용역기간: 2025. 7. 1.(화) ~ 10. 31.(금),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용역비: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 계약업체: 정책연구원 리더스
- 연구내용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설계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제안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책 제언

□ 연구활동 중간보고

- 일시: 2025. 6. 30.(월) 18:00
- 주요내용
 - 그동안 연구활동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

□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 일 시: 2025. 7. 24.(목) 11:00
- 제출방법: 서면 제출
-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치유를 위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연구」 착수보고서 제출
 - 연구진 소개/ 과업의 주제 및 목적, 범위, 연구방법 등 개요 설명/ 정기회의 계획,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타 의회 연계 간담회 등 세부활동계획 보고

□ 정책연구용역 세부계획 논의 간담회

- 일 시: 2025. 7. 28.(월) 10:00
- 장 소: 김미연의원실
- 참석인원: 총 4명(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및 연구원 2명 포함)
-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착수 관련 진행사항 보고
 - 정책연구용역의 문헌연구 내용 및 서구의 사회적 고립 실태 보고
 - 정책포럼 추진을 위한 일정, 장소, 주제, 좌장 및 발제자, 연구내용, 홍보방안 등 계획 논의

□ 제2차 정기회의

- 일 시: 2025. 7. 28.(월) 16:00 ~ 18:00
- 장 소: 의원간담회장 및 관내 음식점
- 참석인원: 총 12명
-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연구범위 및 과업세부계획 등 착수보고 공유
 - 정책포럼 일정 공유 및 주제, 좌장 및 발제자 논의
 - 하반기 우수사례 비교시찰 계획 수립

□ 사회적 고립인구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포럼

- 일 시: 2025. 8. 28.(목) 15:00 ~ 17:00
- 장 소: 서구청 지하대회의실
- 참석인원: 약 80명
- 기초발표: 인천광역시 서구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문화예술 현황
- 주요의제
 - ① 기초자치단체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② 녹청자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굿즈 개발방안
- 패널구성
 - 좌 장: 남상문(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책임교수)
 - 의 제①
 - 발제자: 이은영(인천서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 토론자: 우사라(인천부평구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 의 제②
 - 발제자: 유 미(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 토론자: 강현정(마음펴다심리상담연구소 소장)

□ 정책포럼 평가간담회

- 일 시: 2025. 8. 28.(목) 17:30 ~ 18:30
- 장 소: 서구청 지하대회의실 및 관내 음식점
- 참석인원: 총 23명
- 주요내용
 -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해당 정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점검 및 기존 정책과 비교하여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 재확인
 - 현행 법·제도와와의 정합성 검토 및 법적 근거 부족 시 제도 개선 방법 토론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 가능성, 역할 분담, 공동 재원 마련 방법 등 논의

- 단계별 추진 전략 등 실행 로드맵 추론 및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 및 협력 구조 제시

□ 수원화성문화제 우수사례 비교시찰

- 일 시: 2025. 9. 28.(목) 11:00 ~ 18:30
- 장 소: 수원화성박물관 및 수원화성문화제 행사장
- 참석인원: 총 7명
- 주요내용
 - ‘알기쉬운 수원화성’, ‘천년효행, 그 8일’ 등 특화 체험·전시프로그램 사례 분석
 -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직접 참여 및 시민 호응도 조사
 - 전통문화를 단순 관람 대상이 아닌 ‘참여·체험·학습’의 장으로 확장한 문화예술교육적 가치 제고
 - 본 연구단체와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가 ‘국가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및 프로그램’에 관해 각각의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교류하고자 우수사례 비교시찰 공동 추진, 각 연구단체의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활성화와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여 서구 특화형 협력모델 모색

□ 제3차 정기회의 및 최종보고회

- 일 시: 2025. 11. 11.(화) 16:00 ~ 19:00
- 장 소: 의원간담회장 및 관내 음식점
- 참석인원: 총 14명
- 주요내용
 - 정기회의 및 우수사례 비교시찰 등 연구활동 경과 보고
 -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 자문위원 제언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시

□ 문화예술교육 관계 부서 간담회

○ 일 시: 2025. 11. 21.(금) 10:00 ~ 12:00

○ 장 소: 서구문화재단 및 관내 음식점

○ 참석인원: 총 16명

○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치유를 위한 기초단위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공유
- 향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적용방안 검토
- 서구의 문화예술교육 계획 및 정책 방향성 논의

IV

연구활동비 · 용역비 사용내역

□ 연구활동비(의정운영공통경비)

○ 예산액: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 지출액: 금3,599,800원(금삼백오십구만구천팔백원)

- 세부사용내역

연번	일자	사용내역	금액(원)	비고
1	2025-03-28	제1차 정기회의(자문위원 위촉) 식비	143,000	
2	2025-04-09	현수막 제작	19,800	
3	2025-04-15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우수사례 비교시찰 일비	25,000	
4	2025-04-15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우수사례 비교시찰 간담회비	333,000	
5	2025-06-24	성남문화재단 우수사례 비교시찰 간담회비	258,000	
6	2025-07-28	제2차 정기회의 식비	360,000	
7	2025-08-21	정책포럼 홍보비(현수막, 포스터)	116,600	
8	2025-08-26	정책포럼 간식비	277,500	
9	2025-08-28	정책포럼 평가간담회 간담회비	480,000	
10	2025-09-26	수원화성문화제 일비	50,000	
11	2025-09-28	수원화성문화제 간담회비	120,000	
12	2025-09-28	수원화성문화제 간식비	23,400	
13	2025-09-28	수원화성문화제 버스임차료	375,000	
14	2025-11-10	제3차 정기회의 및 최종보고회 간식비	56,000	
15	2025-11-11	제3차 정기회의 및 최종보고회 간담회비	420,000	
16	2025-11-20	문화예술교육 관계 부서 간담회 간식비	62,500	
17	2025-11-21	문화예술교육 관계 부서 간담회비	480,000	
합계			3,599,800	

V

주요성과 및 총평

□ 자문위원 위촉을 통한 연구단체 전문성 강화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현직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함. 연구단체가 설정하는 방향성 및 정책연구용역의 세부 내용, 그리고 타당성 높은 우수사례 비교시찰 적정지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맥락을 반영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고자 함.
- 자문위원들은 소속의원들과 심도있는 논의 및 의견 개진을 지속적으로 수행함. 서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과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활동 전반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
-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에서 자문위원들과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교류를 이어갔음. 일회성 자문이 아닌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공유하고 비전을 일치시키는 과정이었음.
- 상호 협력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높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넓힐 수 있었음. 자문위원 네트워크의 확장은 연구활동 종료 후에도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 유사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거나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실행 및 후속 과제 추진 시 전문가의 깊이 있는 협력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적 인프라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통한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요성 인지 및 다원적 협력 모델 구축 방안 모색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의 용산

- 서구에서 운영 중인 유사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의 혁신적인 운영 방식과 공간 활용 노하우를 서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주민들의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문화예술 향유 차원을 넘어 지역 통합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예술인과는 직접 기획회의를 운영하여 창작함으로써 양질의 결과물을 생산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예술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정서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매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 초급자와 고급자에 대한 이해 및 프로그램 구성이 절실히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업인 등 민관 협력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체감하며, 자문 위원 및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서구 문화예술교육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해야 함을 인식함.
<p>○ 성남문화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통폐합된 학교를 문화예술교육센터로 전환하여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 성남시교육지원청 간 협업으로 실질적 시너지 창출한 사례를 살폈음. 공간 무상임대와 안정적 관리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양한 단체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는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적 모델을 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교육가와 미래 예술인(수강생) 간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여 예술인 양성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 긍정적이었으며, 예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청년들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예비 예술인 진출의 실질적 지원을 하는 거점 역할이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관련 기관 직원 중 공연자, 연출가 등 예술 전문인력이 상임으로 배치되어 콘텐츠 자립도와 질적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음. 직원의 능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아파트 등 지역 커뮤니티에 수요조사를 실시해 실제 지역 수요 기반의 프로그램을 제공함. 문화예술인, 관련 기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협력 모델을 확립해야 함.

- 문화예술교육 정책 평가 시 정량뿐 아니라 정성적 지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효과와 한계점까지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었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정책 지원 및 실무자 역량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함.

○ 수원화성문화제

- 수원시, 시민단체, 문화예술인, 교육기관, 대학생, 청소년 등 다원적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인상깊었으며, 특히 자원봉사 참여, 학생 참여단, 지역 예술가 참여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 공동체형 축제 운영 모델을 형성한 것에 감명받음.

- 수원화성문화제는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수원시의 역사·문화 정체성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함. 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자원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전통문화축제가 단순 소비형 볼거리를 넘어 세대별·집단별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담아내면서 지속가능성을 확인함. 수원화성문화제는 지역주민에게 향유의 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에게 교육적·창의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적 학습장의 기능을 수행함.

-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서구의 정체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요구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됨.
- 서구문화재단, 지역예술인 등 서구 문화예술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당사자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비교시찰을 함으로써 현장의 필요한 즉각적인 호응과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음.

□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필요성 제고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함.
- 문화예술인 및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워크숍, 해외 우수사례 비교시찰 등을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됨.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채용 확보 및 근무 환경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구축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정책의 다각적 지원 및 체계적 운영이 요구됨.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 제276회 임시회에서 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심우창·김원진·한승일 의원 공동 찬성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 본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원들의 높은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서구의 청소년 정책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됨.
-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창작·체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국내외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당초 계획에는 조례 발의 이후, ‘가좌청소년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 방향 논의 및 문화예술 활성화 우수사례를 비교시찰하고자 했으나, 연구단체 소속의원과 자문위원들의 바쁜 의정활동 및 본연의 업무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계획했던 간담회 및 비교시찰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점이 아쉽음.

- 연구기간 내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추가로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활동 종료 후에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연구를 지속할 계획임. 특히 가좌청소년센터 관계자 및 청소년들과의 간담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화예술 수요와 활동 현황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심화 연구를 이어가고자 함.

□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연구활동 심화

- 정책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사회적 고립인구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정책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함.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이 활발히 교류되어 단순한 자료 수집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예술교육의 정서적·사회적 효과를 국내외 사례 및 지역 내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검증함. 예술활동이 개인의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완화, 공동체 소속감 증진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주민 참여 사례와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명함.
- 부산문화재단이 마을건강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한 의료복지 연계형 예술치유 프로그램인 ‘예술을 담다’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주민의 공동체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제안한 것이 인상깊음.
- 주민 참여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효과와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확인함. 기초 단위 맞춤형 프로그램(예: Healing Week, 예술처방 등)을 제안하고, 행정 협력과 현장 피드백을 거쳐 제도화의 초석을 마련함.
- 정책포럼 및 시범사업의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행지침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또한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적 평가 및 피드백 체계 구축을 강조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지역복지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정책모델을 제안함.

□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한 노력

- 연구활동이 단순히 연구기간에 국한된 일회성 사업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구활동 종료 이후의 지속적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 특히,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서구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합의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기존 조례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인력·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정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치유적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외의 선진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젝트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해외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정기회의에서 소개된 일본의 예술치유 프로젝트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역 공동체의 심리적 재건을 목표로 확산된 활동으로, 예술가·시민단체·재단이 협력해 트라우마 극복과 공동체 회복을 촉진한 사례임. 이를 분석하여 서구형 사회적 고립인구 치유 모델 개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자는 의견이 개선됨.
- 또한 독일 피나 바우쉬 재단은 예술유산 보존을 넘어 아동·청소년·이민자·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서 회복과 자아 성찰을 돕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 우수사례임. 이는 서구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과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이후 연구활동의 동력이 됨.
- 연구활동 종료 이후에도 연구단체 의원 및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외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공식 추진하고, 서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연구성과가 단기 결론에 그치지 않고 정책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제1차 정기회의



자문위원 위촉식 1



자문위원 위촉식 2



자문위원 위촉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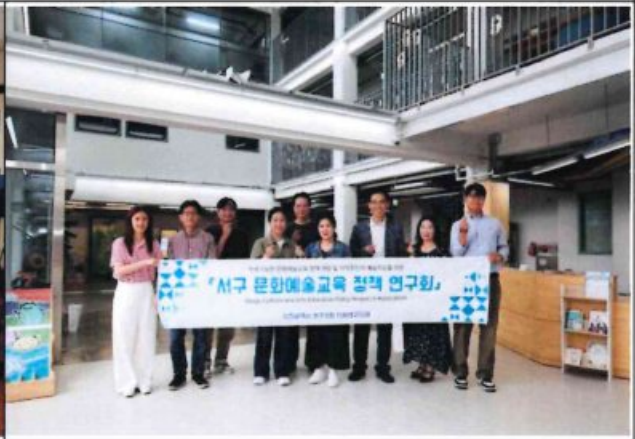
제1차 정기회의 및 자문위원 위촉식 후 단체사진



우수사례 비교시찰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우수사례 비교시찰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우수사례 비교시찰 - 성남문화재단(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



우수사례 비교시찰 -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제2차 정기회의



사회적 고립인구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포럼



사회적 고립인구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포럼



정책포럼 평가간담회



수원화성박물관



수원화성문화제



제3차 정기회의 및 최종보고회



제3차 정기회의 및 최종보고회



제3차 정기회의 및 최종보고회



문화예술교육 관계 부서 간담회



문화예술교육 관계 부서 간담회

현대일보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008면 인천

서구의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활동 시작

사회적 고립 인구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논의



서구의회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 인천 서구의회 제공)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대표 의원 김미연)」가 28일 제1차 정기회의로 연구활동 시작을 알렸다.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회」(이하 "연구단체")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 및 치유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단체는 대표의원인 김미연

의원을 비롯한 김원진 의원, 심우창 의원, 한승일 의원이 참여하며, 사회적 고립 인구 등에 대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단체는 연간 세부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 방향성을 정립했다. 연구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자문위원 7명을 위촉하여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국내외 우수사례 비교시찰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마무리했다.

김미연 대표의원은 "서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주민이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받도록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실행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연구단체가 되겠다"고 전했다.

강용희 기자 kangyh8240@naver.com

인천 서구의회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 서울문화 예술교육센터 용산 방문

최가주 승인 2025.04.17 10:58



인천 서구의회 문화예술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가 15일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을 방문해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우수사례를 비교시찰했다.

이번 비교시찰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센터는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공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예술창작 활동까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역주민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비교시찰에 참여한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자문위원들은 센터가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이 강화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가졌다.

지역 기업인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마중물 역할에도 영감을 받았다.

특히 생활권 주민의 구성과 지역 환경을 분석해 직장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대상에 맞는 커뮤니티 아트 공간을 운영해 주민의 호응을 얻은 점이 주목받았다.

김미연 연구회 대표의원은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등 향후 서구의 문화예술교육 방향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참고해 서구만의 색깔을 담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기주 기자

 **최기주** rsalter@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간경기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007면 지역

서구형 문화예술교육 발전 위한 안목 넓혀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남아트센터 방문 벤치마킹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가 24일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 및 '성남아트센터'를 방문해 서구형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했다.

이번 시찰은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의 실제 적용 사례를 관찰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체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꿈꾸는예술터' 간담회에서는 폐교를 활용한 유희시설 리모델링 사례와 지역 예술인

및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센터가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닌 아파트커뮤니티처럼 지역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는 긍정적 사례와 인근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를 만나 지역주민 수요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했다.

이후 성남아트센터 인근에서 열린 차담회에서는 문화예술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 육성

및 교육·워크숍 지원 등을 통한 동기부여,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회복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연 대표의원은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적 효과와 한계를 직접 체감하며 서구형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인 및 관련 기관 종사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수 기자

서구의회, '사회적 고립인구 치유를 위한 정책 포럼' 개최

✎ 이병훈 기자 ㉠ 승인 2025.08.29 10:14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치유와 공동체 회복 방안 제안



인천 서구의회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가 개최한 '사회적 고립인구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포럼' 사진=서구의회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는 28일 '사회적 고립인구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기관, 예술인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 문제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 서구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문화예술 현황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방향성 ▲녹청자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및 굿즈 개발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은영 인천서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센터장은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고립인구에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삶을 재설계하는 촉매제이다”라며, 노인복지관·정년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문화원 등 관내 행정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회복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또한 유미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서구의 주요 문화유산인 녹청자를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을 녹청자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이를 지역상품 및 문화관광으로 확산시킨다면 개인의 정서적 치유와 지역사회의 선순환 경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미연 대표의원은 “이번 포럼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바라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따뜻한 공론의 장이다”라며, “문화예술은 감정을 나누고,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힘을 지닌 만큼 오늘 모인 지혜와 대안이 서구를 더 건강한 공동체로 이끄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병훈 기자 tttec@naver.com

인천 서구의회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수원화성문화제 우수사례 비교시찰 진행

✎ 박철우 기자 | ⓒ 승인 2025 09 30 13:45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가 수원화성문화제 비교시찰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의회 포토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는 지난 28일 수원화성박물관 및 수원화성 문화제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은 국가유산과 지역축제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분석해 서구 지역 특화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원화성문화제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단순한 관람형 행사가 아닌 시민 참여 모임이 이루어져 의미가 깊었다. 퍼레이드와 입궁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에 시민들이 직접 퍼포머로 참여하고 관람해 성대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참여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익힌 역량과 창의적 성과를 지역축제 현장에서 선보이고 자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지역 문화예술활동에 더욱 적극 참여할 동기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와 공동 추진하며 각자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성과를 거뒀다.

김미연 대표의원은 "문화예술 활성화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우리 연구단체가 추구하는 참여·체험·학습이 어우러진 서구형 문화예술교육 개발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 기자 press11@daum.net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일보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007면 정치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정책 방향 도출

인천 서구의회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가 지난 11월 제3차 정기회의 및 최종보고회를 열고, 올 한 해 진행한 정책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회는 김미연(국민의힘·서구다) 대표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김원진(가)·심우창(바)·한승일(나) 의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자문위원이 함께해 연구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정책연구영역을 통해 수행된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치유를 위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연구는 사회적 고립 해소와 심리적 회복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김미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문화예술을 보건·복지·교육, 그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의 축으로 바라본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서구가 문화로 사람을 연결하고, 예술로 지역을 치유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실행 단계까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최기주기자